**천상의 멜로디/메리에타 데이비스**



하나님의 구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이고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간증이 있는데,

메리에타 데이비스의 "천국에서 보낸 9일"이라는 책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간증입니다.

천상의 멜로디

"메리에타, 한번 들어보렴!"

그가 내 관자놀이를 누르자 깊은 침묵 속에서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천사의 호흡 같기도 하고, 영혼 내부의 더 할 수 없이 거룩한 생명체 같기도 했다.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음악이 몸 전체를 타고 서서히 움직였다.

그토록 거룩한 음악에 반응하는 것들이 내 안에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그런 화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내 모습 전체가 변한 게 분명했다.

나는 음악과 완전히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

음악이 계속 흐르자 그것이 내 안에 흐르도록 내버려둘게 아니라

아예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내 의지가 소리와 뒤섞였다.

그러자 즉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면서

죄에 물든 본성이 강력한 힘으로 나를 압도했다.

음표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파고 들었지만,

내 안에서 흐르는 음악과 더 이상 하나가 되지 못했다.

내가 그것에 섞이려고 할 때마다 끔찍한 불협화음이 났다.

서너 차례 이런 식으로 끝나자 듣는 게 쉽지 않았다.

나의 본성이 그것과 섞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에서 들리는 불협화음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내 몸 도처에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다.

둥근 지붕 전체를 울리는 화음의 물결이 나의 변질된 마음에 도달하자

격한 바닷소리에 파묻혔다.

달아나고 싶었다.

여기만 아니라면 다른 어떤 곳도 괜찮았다.

거짓으로 예배하는 지옥과 같은 곳이 내 본성에는 더 적합한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나는 완벽하게 방향감각을 상실했다.

순간순간이 영원 같았고, 그러다 보니 내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결국 나는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다.

"이곳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암흑속에서 영원히 숨게 해주세요!

나를 숨겨 주세요! 이 빛을 피하게 해주세요! 내 죄악을 감출 수 없어요!

달리 더 깊숙한 지옥이 있나요?

그곳으로 보내주세요, 길을 잃어서 악마가 조롱해도 상관없어요,

이곳과 어울리지 않아서 끝날 것이라면

내 영혼은 적어도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나는 빛과 조화와 평강이 충만한 세계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낙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게 내 생각이었다.

나는 정말 그곳에서 지내고 싶었지만,

발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조금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내가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 갔을 때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 가서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다.

조화롭고 사랑이 넘치는 천국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나의 진정한 모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옥처럼 재앙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도움을 구하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이 내 머리 속을 어지럽혔다.

나는 내 모습을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길을 잃었고,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한참 뒤에 천사가 입을 열었다.

' 메리에타, 너는 길을 잃지 않았단다.

네 죄가 드러나고, 네 영혼의 진짜 모습이 밝혀져서

고통을 겪는 것은 맞지만,

어쩌면 이제 선하신 하나님이 주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구속을 예비하고

변화를 겪게 하시는지 알게 될 거야.

처음에 이곳에 도착했을 때, 너는 스스로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했지.

그냥 손님으로서 거룩하다고 인정 받아서 보호받고 들어올 수 있었단다.

하지만 이곳이 너무 거룩해서 너의 내적인 삶이 밝혀지고 죄가 드러난 거야.

네가 고통스러워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란다.

이제는 어째서 하나님이 비슷한 영혼들을 같은 장소에 배치하시는지,

선하고 악한 영혼들을 분리해 두시는지 깨달았을거야.

악한 자가 맛보는 재앙은 늘어나지 않고,

선한 자가 누리는 행복은 줄어들지 않는단다.

사도 요한이 가증한 일을 하는 자가 거룩한 도시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것도

그 때문이지.

거룩하지 않은 영혼은 이 거룩한 성전과 도시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단다.

마찬가지로 이 거룩한 곳의 거주자들은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영혼들과 함께 어둠의 장소에서 지낼 수 없단다."

이 간증에서 매리에타 데이비스가 천국의 음악을 들으며 괴로워한 것은

그가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천국과 지옥뿐 아니라,

천국의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갔을 때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왜 거룩이, 그리고 주님을 닮는 것이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업적이 아니라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취가 아니라 자신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Tags

닮기 하나됨 동질성